

“새는 돈 막자” 은행 수수료 면제 받는 법

■ 은행별 타행 송금 수수료

(영업 마감 후 기준·단위: 원)

은행	자동화기기	모바일
BNK경남	1,000	500
BNK부산	1,000	면제
SC	1,000	500
Sh수협	950	500
NH농협	800	500
전북	800	500
DGB대구	750	500
우리	750	500
광주	700	500
제주	700	500
KDB산업	600	면제
신한	600	500
하나	600	500
IBK기업	500	500
KB국민	500	500
케이뱅크	면제	면제
한국씨티	면제	면제
한국카카오	면제	면제

(자료: 은행연합회)

광주은행, 입출금 자유롭고 금융 수수료 면제 ‘내통장’ 출시 농협 ‘NH1934우대통장’ 조건 충족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금융 수수료 등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은행 상품에 소비자가 몰리고 있다. 은행권은 금융 수수료 무제한 면제 등을 내걸며 예금 고객 모시기에 나섰다. 20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지방은행을 포함한 은행 15곳의 타행 송금 수수료는 500~1000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씨티은행과 케이뱅크, 한국카카오은행 등 인터넷은행은 자동화기기나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면 타행 송금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창구를 이용할 때의 송금 수수료는 500원에서 1000원까지 다양하다.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돈을 인출할 때는 인터넷은행을 제외하고 800~10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이처럼 금융 수수료를 면제하는 인터넷은행으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가 늘면서 은행들이 잇따라 ‘수수료 면제’를 내세운 금융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각

종 금융 수수료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 ‘내통장’을 20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내통장’은 기존에 광주은행 입출금통장마다 조금씩 달랐던 수수료 우대조건을 통합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일상적인 금융거래만 하더라도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우대조건은 7가지이며, 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된다. 공과금 등 자동이체를 월 3건 이상하거나 ▲급여이체 월 1건 이상 ▲광주카드(체크카드 포함) 월 사용실적 20만원 이상 ▲카드가맹점 매출대금 입금실적 월 3회 이상 ▲이 통장의 월 평균잔액 20만원 이상 ▲외환거래 월 200불(미화환산) 이상 ▲광주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유지 및 타행계좌에서 내통장으로 이체 월 1회 이상 등을 이행하면 된다. 수수료 면제 횟수는 무제한이며 ▲전자금융(인터넷·폰·스마트뱅킹) 이체수수료 ▲광주은행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납부자동이체(타

행자동이체 포함)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내통장’을 보유 중인 가입자에게는 주요 외국통화(미 달러·엔화·유로화)를 거래할 때 해외(당발)송금수수료와 송금환율, 현찰환전환율을 각 50%씩 우대한다. NH농협은행 ‘NH1934우대통장’도 일정 조건을 맞추면 전자금융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상품으로 수수료 면제를 받으려면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NH스마트뱅킹·올원뱅크) 또는 NH농협은행 오픈뱅킹 서비스로 월 2회 이상 이체하고, 급여이체·자동이체·NH1934체크카드 이용 실적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박기원 광주은행 영업기획부장은 “그동안 금융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고객의 직업이나 거래형태에 따라 상품 가입을 달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내통장’은 일상생활 중 간단한 금융거래 하나만 충족해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주부 등 누구나 ‘내통장’ 하나만으로 편리하고, 경제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청년 맞춤형 전·월세 특판대출’ 인기



8개월만에 1060명·510억원 월세자금 금리 최저 연 2.32%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광주은행 ‘청년 전·월세 특판대출’ 이용자가 8개월 만에 1000명을 넘겼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6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 특판대출’ 금액이 510억원(이용자 1060명)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공급 예정 금액이었던 500억원을 상향한 금액이다. 이 같은 호응에 광주은행은 한도를 1000억원으로 확대·연장 시행할 방침이다. 해당 특판대출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중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소득이 없는 대학생 등도 신청 가능한 것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특판대출 금리는 전월세보증금대출 최저 연 2.51%부터 최고 연 2.73%, 월세자금대출 최저 연 2.32%부터 최고 연 2.42%(19일 변동금리 기준)이며, 기존 대출 대환도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택법상 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며,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공역이 510억원(이용자 1060명)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김재준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청년층에게 저금리의 전·월세자금 지원으로 목돈마련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고민을 해결하는 등 서민 금융 지원 확대와 상생경영에 앞장서겠다”며 “광주·전남의 대표은행으로서 우리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파킹통장 ‘잇(it)판주머니통장’ 수협은행, 금리 1.1%로 인상

Sh수협은행은 ‘머니파킹 통장’으로 불리는 수시 입출금식 통장 ‘잇(it)판주머니통장’ 금리를 0.2%포인트 올린 1.1%로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최대 0.1%포인트 이내 금리 우대를 받으면 1.2%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파킹(Parking) 통장’은 잠시 주차를 하듯이 일정금액을 하루만 맡겨도 약정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수시 입출금식 통장을 말한다. 금융 소비자들은 불안한 주식·채권 대신 ‘짧고 굵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기 금융 상품’에 눈을 돌리고 있다. Sh수협은행 관계자는 “예금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짧은 기간만 여유자금을 맡겨도 고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며 “이번 금리 인상은 단기자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입출금통장의 편리함과 고금리 혜택을 동시에 누릴 기회”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오른쪽 두번째)는 20일 고흥 팥영농협을 찾아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홍보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농업인 연금보험료 50% 지원 꼭 받으세요”

농협 전남본부 홍보 나서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농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20일 고흥을 찾았다. 전남본부는 이날 고흥 팥영농협을 방문해 조합원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를 홍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지역 농업인인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5만966명으로 전국 농업인 가입자의 14.1%를 차지한다. 이 제도는 농수산물 수입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월 4만3650원, 연간 최대 52만3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

으며 나머지 50%는 농업인이 자부담한다. 신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김석기 본부장은 “이 지원제도는 소득이 낮은 농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며 “농업인의 노후 보장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NH농협,뱅크샐러드와 핀테크 강화 나선다

상품·서비스·마케팅 등 협약

NH농협은행이 금융플랫폼 ‘뱅크샐러드’와 손잡으며 핀테크(금융 기술)를 강화한다. NH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은 금융플랫폼 ‘뱅크샐러드’의 운영업체 레이니스트와 ‘금융데이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농협 측은 협약에 따라 뱅크샐러드에 입·출금, 공과금 조회, 환전 등 7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제공하고, 뱅크샐러드 애플리케이션 내 ‘대출금리 비교서비스’에 참여하기로 했다. 또 양측은 비대면 카드 추진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농협 앱에서 뱅크샐러드 데

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폭규제를 없앤 ‘데이터 3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앞으로 상품·서비스·공동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대훈 은행장은 “농협이 가진 강점인 API 인프라와 레이니스트가 가진 혁신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초개인화 서비스, 대고객 맞춤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양사의 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데이터 비즈니스 협력모델을 발굴해 상생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 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모던 스타일

Modern!

클래식 스타일

Classic!

지중해 스타일

Mediterranean Sea!